

SNUAC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2

라틴아메리카 내 인종, 젠더, 계급: 대중문화텍스트로서의 한류 수용 및 해석

민원정

칠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시아인을 흔히 치노(중국인)라고 부르며 아시아 대중 문화 팬을 "이상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치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치노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유럽 중심주의와 Chinoism 요소는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유산뿐만 아니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상상의 유럽 중심 사회를 살아가면서 팬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대중문화 이미지를 통해 자신만의 '아시아'를 꿈꾼다. 한류의 세계적 인기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중남미에까지 확산되었고 K-pop에 대한 특정 수용, 소비 및 정체성 역학을 포함하는 팬덤이 구축되었다. K-pop은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정 붐을 일으켰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었을지? K-pop을 통해 한국의 사람과 문화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을지? 이 강의는 특히 성별, 계급, 인종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한류의 수용, 소비, 모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칠레가톨릭대학교 역사학과·아시아학센터 교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Jorge Luis Borges)의 텍스트 분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문학적 텍스트분석을 대중문화텍스트에 적용, 스페인어권 화자들이 한류를 비롯한 아시아대중문화를 수용·소비·재해석하는 양상을 식민 경험이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과 인종·젠더·계급에 기반해 연구 중이다. *Transnational Hallyu: The Globalization of Korean Digital and Popular Culture*. (공저), 및 "The Perfect Man: The Ideal Imaginary Beauty of K-pop Idols for Chilean Fans" 등 한류 수용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일시: 2022년 6월 15일 (수),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220호)